

産·官 군수산업 민수화 조사단 러시아 방문



産·官 합동 군수산업 민수화(民需化) 조사단(정부 및 업계 대표, 총 29명)이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실태 파악 및 기술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이번 방문은 러시아측의 민수전환계획 설명회 청취와 함께 6개 관심분야별 산업시찰順으로 진행되었다

(본문 계속)

향후 러시아와의 防産협력은 우방 선진국에서 이전을 기피하거나 高價인 방산기술 도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특히 민수/군수 공용기술을 식별, 도입하는 노력을 배가(倍加)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적도입을 포함하여 소재(素材)산업도 협력이 유망한 분

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간은 물론 양국 업체와 연구기관 사이에 계속적인 접촉이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일 양국 상공부장관 회담시, 합의한데 따른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美 UTC社 주최, 한·미 기술협력 세미나 열려

韓·美 정부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의 年内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간차원에서 기술협력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UTC)社가 주최한 기술협력 세미나가 11월 3일부터 3일간 롯데호텔에서 1백5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화시대의 기술경영과 개발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UTC社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기 ▲엔진 ▲소재 ▲제조 ▲빌딩 및 이동시스템 ▲시스템통합 부품 ▲전산기술 등 7개 분야에서 韓·美 기업간 협력이 가능한 공동 연구과제 도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UTC社의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정부 학계, 출연연구소 및 기업연구소로 하여금 사전에 자문위원단을 구성, 실제 필요한 기술을

1년전부터 검토 협의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전투기사업 기종인 F-16기의 엔진 공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UTC(산하 P & W)社는 美 16大 기업으로, 항공우주, 건축설비, 자동차부품등 첨단기술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